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발행인 김문수 편집인 김덕호

발행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스타워 7-8층
02-721-7100 www.eslc.go.kr

발간일 2024. 7. 18.

f eslc.kr i eslc.go.kr 경제사회노동위원회



9 772636 133001
ISSN 2636-1337

사회적 The Social Dialogue 대화 Brief

2024년 - 11호 | 통권 58호 |

“주한 베트남 근로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양국이 힘써야”

- 김문수 위원장, 「한국-베트남 노동포럼」 참석 -



▲ 7월 1일 김문수 위원장과 부이 타이 썬 외교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한국-베트남 노동포럼」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양국이 힘써야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7월 1일(월)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그랜드홀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노동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관계가 지난 2022년부터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노동 분야 이해 증진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팜 민 쯔(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참석해 그 의미가 더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에서 일하는 6만 여명의 베트남 근

로자를 격려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는 베트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류 국가로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베트남 노동자의 관리와 채용을 위해 한국정부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부이 타이 썬 외교부장관, 응우옌 쩌 중 기획투자부 장관, 응우옌 흥 지엔 산업무역부 장관 등을 포함한 약 600여명의 베트남 대표단과 베트남 근로자,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과 지자체와 업계 등 현장의 고충도 함께 논의됐다. **eslc**

담당 손옥이 전문위원

“산업전환은 신산업 경쟁력 확보가 관건”

- 경사노위,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 개최 -



▲ 김문수 위원장은 7월2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을 방문해 노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래 왼쪽부터 임순규 한전MCS 노조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 이지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송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월 2일(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공공노련 집행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노련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공공노련 산하의 ‘산업전환일자리위원회’를 소개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현안 공유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공공노련은 최근 탈탄소·디지털 산업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산업전환일자리위원회’를 6월 17일 발족했다. 산업전환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분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을 도출했고 그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5월 30일 출범했다”며, “시대적 과제인 산업전환 대응은 사회적 대화로 헤쳐가기로 한 만큼 노사정은 새로운 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용 공공노련 위원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 일자리 문제와 산업전환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



▲ 김문수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경사노위는 지속적으로 산별노조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업종별 현안 청취하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SC**

담당 이현욱 전문위원

김문수 위원장, 한전MCS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 가져

- 전남 나주시 한전MCS 노조 천막농성장 방문 -



▲ 김문수 위원장은 7월 4일 한전MCS노조 농성장 방문해 노사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임순규 한전MCS노조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 정성진 한전MCS 대표이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월 4일(목) 전남 나주시 한전MCS를 방문해 노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7월 2일 경사노위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간담회에서 한전MCS 현안 사례를 논의하는 와중에 공공노련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대적 과제인 산업전환 대응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표급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며, “산업전환은 노사정 모두가 신산업 경쟁력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투쟁보다 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전MCS 임순규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



▲ 김문수 위원장이 노사대표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위에서 산업전환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보다 일자리 유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전MCS노조는 정부의 AMI(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축소 및 고용불안에 따라 나주 사옥 앞에서 농성투쟁 중이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한전MCS노조는 농성을 마무리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광주청 이성룡 청장도 자리를 함께 했으며, 간담회 이후 한전MCS 정성진 대표 및 임원진 과도 면담을 가졌다. **ESC**

담당 이길모 전문위원



▲ 김문수 위원장이 노조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서울노총이 대화와 타협의 노동운동에 앞장서 달라”

-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간담회 개최 -



▲ 7월 15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7월 15일(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김기철, 이하 ‘서울노총’)를 방문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노동운동의 발상지인 서울노총이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노동운동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결·투쟁보다 단결·대화가 답(答)”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노총 김기철 의장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역할이 크다”며, “위원회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서울시 영등포구 44길 10)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발상지다. 이 곳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항복할 당시 기관차 제조공장인 용산공작소 부지로 사용됐다.

용산공작소는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조합(대한노총)의 자리였다. '63년 영등포 노동회관에서 영등포 지구협의회 결성으로 시작된 서울노총은 수도서울의 노동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김기철 의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자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문수 위원장은 지역의 노동단체를 방문해 ‘중앙과 지역이 연계하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slc](#)

담당 이길모 전문위원

